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됨이 식지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b>교회목표</b>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b>교회생활지침</b>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월 9일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a href="http://calvary.byus.net">calvary.byus.net</a>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늘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 하면서도 무릎 꿇음이 없는 자신을 보라.

사랑을 외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라.

십자가를 말하지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우리가 아닌가.

서로 사랑하라 말하지만 죽어짐이 없는 우리가 아닌가.

복음을 말하지만 뜨거움이 없는 자신을 보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헌신이 사라진 자신의 초라함을 보라.

꿈은 위대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신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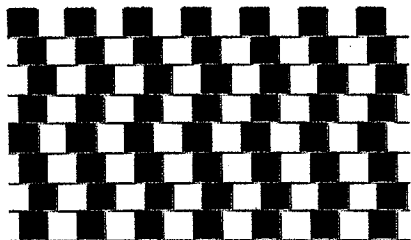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이나요?▶

옆으로 그어진 선들이 제 각기 휘어져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주보를 눈높이로 들고 옆에서 보면 똑바른 직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바둑무늬모양으로 인해 선이 비뚤어져 보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아!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

택시를 탈 경우 아무 곳에서나 차를 잡으려 한다면 그는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탈 차만 생각하고 뛰 따르는 다음 차도 생각할 줄 모르는데 어찌 먼 장래일을 생각할 수 있겠니.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문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7 (시 56)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찬 송 Hymn	487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0:38-42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은 십자가 성가대 (3 남아선교회)
설 교 Sermon	『목적은 잃지 않는 봉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31장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 ◆1월의 예배위원◆

### ◆1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2	지찬영	강동호	1구역	4남여
9	노은숙	강은미	2구역	3남여
16	박일영	강현정	청년부	4남여
23	이광희	경덕현	3구역	3남여
30	이규임	권정호	4구역	2남여

주 일	예배와 모임
2	신년주일
9	
16	식사친교주일 연합제직세미나(20)
23	수요예배개강(26)
30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정기회의(30)

###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라(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4시

### 1. 교우소식

<등록> \*강보원, 권광순 집사(1구역, 2선교) 현정, 보경, 민석(청년부)

☎ 625-2388 19 Pah Rd. Epsom

\*나종업, 안수여 집사(10구역, 4선교), 하영, 재혁(아동부)

☎ 835-9886 34A Brookwood Dr. Western Heights.

\*김종건 장로, 모친 별세 후 장례(한국), 뜨거운 믿음 안고 사셨던 어머니님. 이제는 하나님 보좌 곁에서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 2. 주방봉사 Helper로 자원봉사 하실 교우를 기다립니다(3명)

\*주일 11시부터 봉사하실 수 있는 교우

### 3. "아동부 종이접기 Day Time Camp" <일시> 13일(목) 10 AM - 3 PM <장소> Hall

\*색종이로 곱게 접은 비행기, 빙빙 돌며 날아가는 날개에 어린이들의 꿈도 실려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실 "1일 자원봉사 교사" 를 기다립니다(문의: 김경숙 집사)

### 4. 2005년 첫 구역모임: 다음주일의 "구역별 식사" 로 구역식구 상견례를 갖습니다.

\*구역에서는 반찬, 음료를 준비해 주세요. (밥, 불고기는 봉사부에서 준비)

### 5.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2월부터 모입니다.

### 6. 수요예배가 방학중입니다. 그러나 금요 새벽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6 AM.

\*성기는 교회가 있으면서 출가분한 마음으로 이웃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은혜가 이웃교회에서는 넘쳐 나기도 합니다. 그 은혜! 이번 방학기간에 많이 받으십시오.

### 7. "뉴질랜드 장로교 한인목회자협의회(KMA) 연합제직세미나" (예고)

<강사> 윤덕수 목사 <일시> 20일(수) 저녁 7:30분 <장소>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 ◀착한 시인▶ 시골 버스

조항미

아직도 어느 외진 산골에선  
사람이 내리고 싶은 자리가 곧 정류장이다.  
기사 양반 소피나 좀 보고 가세  
더러는 장비구니를 두고 내린 할머니가  
손주놈 같은 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억새숲으로 들어갔다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싱글 병글 소 김혜영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옆구리를 슬쩍슬쩍 간질러대는 시골 버스  
멈춘 자리가 곧 휴게소다  
그러니, 한나절 내내 기다리던 버스가  
그냥 지나쳐 간다 하더라도  
먼지 풀풀 날리며 투덜투덜 한창을 지나쳤다  
다시 추진해 온다 하더라도  
정류소 팻말도 없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팔을 들어 올린 나여, 너무 불평하진 말자  
가지를 번쩍 들어올린 포플러 나무와 내가  
어찌면 버스 기사의 노곤한 눈에는 잠시나마  
한 풍경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니

이럴 줄 알았으면 포플러나무  
늘어진 시골길 매미 소리를  
좀 더 오래 귀담아 들어들걸,  
이다지도 그리움이 짙어질 줄  
알았으면 흩먼지 날리며 지나  
는 버스 뒤를 향해 눈 흘기는  
대신 남기고 간 휘발유 냄새  
를 더 깊이 마셔들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사 아저씨 눈  
치 아랑곳없이 추운 겨울 버  
스안의 따뜻한 보닛위에 좀  
더 오래앉아 있을걸.....  
이제부터라도 모든 삶의 순간  
순간을 훗날의 그리움으로 알  
아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  
습니다.